비전개발 12주차 보고서

21600685 조예성

“우리는 모두 이미 승리하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성실히 하라”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다름 아닌, 세상과 죽음의 법칙을 이기시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 첫 결실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우리의 끝 날도 장차 그와 같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다. 우리의 비전은 이러한 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것이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 지를 우리는 그 분 앞에 온전히 아뢰어야 할 것이다. 교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의 말씀을 해주셨다.

사실 큰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짧은 말씀이었지만, 분명 이 주제는 우리가 앞으로 아니, 나이가 20, 30, 40 계속 먹어가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어쩌면 죄로 가득한 우리는 평생 죽는 순간까지 씨름을 해야 하는 영적 전쟁일 수 있다. 세상 속에서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존재이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런 자들을 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셨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러한 전공을 내가 왜 공부하며 이것을 가지고 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있었다. 주께서는 나를,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쓰고자 하실까. 나를 통해 무엇을 바라시는 걸까. 한동에서 공부를 시키시는 이유는 뭐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험한 세상을 나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불안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하루들 속에서 주께서는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

사실 많이 두렵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들어오고 또 다시 아침에 들어오고, 정말 열심히라면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내 명예일까. 주님일까. 목적 없는 출항과 방향 없는 뜀박질은 헛된 공허함만 낳을 뿐이다. 주님의 크신 복음의 명령, 위대한 지상 대명령을 위해? 옆에 어렵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작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다면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는 지금, 세상은 두렵게만 느껴지는 지금,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